

<2011년 4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나 예수를 느끼고자 하는 자만 느끼고, 받고자 하는 자만 받게 된다.
(주편)
2. 책임분담 조건은 하늘의 천법이며 깊은 비밀의 뜻이 있다. 책임분담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주편)
3.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뜨듯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차원을 더 높일 수 없도록 높여라.
4. 기분 따라 주님을 따르지 말아라. 주님은 신흔골수를 꿰뚫어 다 아신다. 또 주님을 옹위하는 천사들이 다 안다. 고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영과 육과 마음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
5.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삼위의 존재자이다.
6. 나 예수와 접붙이지 않는 자는 자기 때가 와도 생명의 진액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 시대의 차원이 높아진 만큼 죄의 대가의 차원도 높아지고 의의 대가의 차원도 높아졌다. (주편)